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특장점과 평가 — 서신서 중심 —

최영숙*

1. 들어가는 말

여러 나라 성서공회에서는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부터 해설 성경을 내놓기 시작했다. 해설 성경은 말씀에 대한 짧은 해설을 곁들여 독자들의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주석서나 신학서적을 읽지 않고도 간단하게나마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성이 있다. 한 권의 성경 안에 말씀과 해설이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약 30여 종 이상의 해설 성경들이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2001년 이후 기준).¹⁾ 이런 해설 성경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때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된 해설 성경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아주 많이 선호한다.

대한성서공회가 그간 내놓은 해설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1997년에 독일성서공회의 해설을 번역하여 『개역한글』에 덧붙인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이다. 2005년에는 이 해설을 『개역개정』에 덧붙여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2001년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해설²⁾을 『개역개정』에 덧붙

* Johannes Gutenberg Univ. Mainz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amoteme@gmail.com.

1)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56.

2) <굿뉴스 스테디바이블>(Good News Study Bible)은 미국성서공회의 영어 <굿뉴스바이

인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이다. 이들 해설 성경도 이미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³⁾ 그런데 이번에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에다 스위스 취리히 개혁교회가 출간한 <취리히성경해설집>을 번역하여 새로이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 『취리히해설』)을 내놓았다. 대한성서공회는 항상 전문가의 손을 거쳐 검증을 통해 책임 있는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취리히해설』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 이 글의 목적은 『취리히해설』 중에서 서신서 부분에 대해 특징점과 유용성,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먼저, 『취리히해설』의 배경과 특징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 개별 책으로는 두 서신을 선택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안할 것이다. 그 대상으로는 해석이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일 것이다. 이 두 서신의 본문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몇 개의 본문만을 선별할 것이다. 곧 로마서 전체 해설, 3:21-26; 5:12-21; 13:1-7, 그리고 에베소서의 경우 전체 해설, 2:11-22; 3:14-21; 5:21-33을 다룰 것이다.

2.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배경

스위스 취리히 개혁교회⁴⁾는 2007년에 <취리히 성경>(Zürcher Bibel) 개정판을 출간했다. 아울러 ‘부교재’(bibel[plus]) 네 가지⁵⁾도 함께 만들었다. 대한성서공회는 ‘부교재’ 가운데 하나인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을 번역하여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이름으

블>(Good News Bible) 본문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만든 해설을 덧붙여낸 해설 성경이다.

3) 이 두 해설 성경에 대한 서평은 다음 논문들에서 볼 수 있다. 신약에 관한 것은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56-68. 구약에 관한 것은 왕대일,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5. 독자입장에서는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 (2001), 69-82.

4) Evangelisch-reformierte Landeskirche des Kantons Zürich.

5)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성경원문연구』 40 (2017), 265-291 참조.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i) 『둘러보기 - 취리히 성서 가이드』 (*Besichtigt. Der Reiseführer zur Zürcher Bibel*, 초판 2007; 제2판 2009). ii) 『깊이 들어가기 - 취리히 성서 세미나』 (*Vertieft. Das Seminar zur Zürcher Bibel*, 2007). iii) 『뜻풀이 - 취리히 성서 해설』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초판 2010; 제2-3권 제2판 2011). iv) 『함께 듣기 - 원음 취리히 성서』 (*Mitgehört. Der Originalton zur Zürcher Bibel*, 2007).

로 출판하였다. 스위스의 <취리히성경>(Zürcher Bibel)과 개정의 역사(1524-2007년)는 독일 <루터성경>(Luther Bibel)⁶⁾과 쌍벽을 이루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⁷⁾ <취리히성경>은 처음에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⁸⁾ 독일에서 1534년 <루터성경>(신구약)이 나오기 전에 스위스 취리히 개혁교회는 이미 3년 앞서(1531년)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 있는 <취리히성경>을 출판했다.⁹⁾ 그러므로 신구약성경이 다 들어 있는 최초의 성경은 오히려 <루터성경>이 아닌 <취리히성경>인 셈이다. <취리히성경>은 <루터성경>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독일어 번역 성경으로 자리 잡아 왔다.

3.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짜임새

3.1. 해설 방식

『취리히해설』은 각 책별 기본 정보를 먼저 소개한다. 그런 다음 책의 전체 해설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본문 해설을 제시하는 방식은 본문을 의미 단위의 개별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마다 그 끝에 해설을 덧붙였다. 『취리히해설』은 개별단락마다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기에 편리하다.

3.2. 책별 해설의 짜임새

3.2.1. 각 책 전체의 기본 정보 소개

성경의 각 책을 열면 성경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책 이름(그리스어 신약성서, 라틴어 불가타 성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쓴 때, 생겨난 곳, 쓴

6) 독일성서공회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2016년)을 맞아해 개정판 <루터성경 2017>(Lutherbibel 2017 [LU17])을 출판했다. 온라인 사이트 참조.

<https://www.die-bibel.de/bibeln/online-bibeln/lutherbibel-2017>.

7) 『취리히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을 참고할 수 있다.

8) 『취리히성경』은 『루터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부터 나왔다. 츠빙글리에 대한 것은 독일의 신학사전에서 레핀(V. Leppin)이 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V. Leppin, “Zwingli, Ulrich (1484-1531)”, G.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vol. 3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2004), 793-809.

9)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268.

사람, 문학 형식, 통일성, 정보의 가치, 중심 낱말, 신학, 활용, 영향 등을 도표로 아주 짧게 소개한다. 간단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가 책의 기본 지식을 알고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중심 낱말’을 제시함으로써 책의 핵심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명과 이름은 본래 고유명사이기에 원어 그대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코린트(고린도), 스페인(서바나), 안티오키아(안디옥), 프리스카(브리스가) 등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말 번역성경들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취리히해설』은 원래 발음과 함께, 현재 우리말 성경에서 사용하는 발음도 동시에 표기하였다. 두 가지 병행 표기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고유명사의 원래 발음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그런데 가끔 옛 방식 그대로 표기한 것들도 많다(젠그레아, 바벨론, 라오디게아, 뵈뵈, 디모데, 스테바나, 눔바 등). 원래 취지에 맞게 고유명사를 통일성 있게 표기했다라면 좀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다.

3.2.2. 책별 전체 해설과 단락별 해설

『취리히해설』은 각 책 전체의 기본 정보를 소개하고서 책에 관한 기본 내용까지 간단하게 알려 준다. 이를 통해 책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책의 짜임새, 문학적 성격, 생겨난 과정, 중심 내용과 흐름, 신학적 관심의 기술은 각각의 책의 특성을 간파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취리히해설』은 독자들이 성경본문을 읽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안내를 받고 본문으로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친절한 해설 성경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개역개정』 본문을 먼저 단락별로 나누어 제시한 후에 그 끝에 단락의 해설을 소개한다. 마지막 단락 해설이 끝난 뒤에는 해석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 둔다. 고린도전후서를 해석한 사람은 안드레아스 린데만(Andreas Lindemann)이며, 로마서의 경우 콘라트 할디만(Konrad Haldimann)이라는 사실을 제공한다. 단락별 해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의 학계 연구 결과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약의 본문이 구약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용된 구절들을 표시해 놓았다. 이는 바로 관련된 구약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말씀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개별 책에서도 책 내의 상호관련 구절도 제공하여 본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덧붙여 『취리히해설』은 원문이 다른 읽기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해 놓고 있다. 곧 어떤 다른 사본에서 다른 낱말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필요한 곳에만 적절히 표시해 놓았다. 또한 그리스어가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경우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독자가 원문의 또 다른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4.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특징점과 유익성

앞서 책별 전체 해설의 구성과 단락별 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여기서는 『취리히해설』의 특징점과 유익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제시할 것이다.

4.1.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해설 성경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너무나 바쁜 현대인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꼬박꼬박 주석서를 챙겨 보는 시간을 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런 현대인들을 위해 『취리히해설』은 큰 장점을 가진다. 한 권의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전체 해설과 단락별 해설까지 곁들인 해설 성경은 현대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더욱이 『취리히해설』의 책별 전체 해설이나 단락별 해설은 어느 해설 성경보다 통찰력 있게 진행되었다.

전체 내용으로 볼 때 단행본으로 출간된 웬만한 주석서에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안성맞춤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또한 시간에 쫓기는 설교자들도 본문의 요점을 빨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권의 책 안에 말씀과 해설이 함께 들어있으니 얼마나 편리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해설을 담은 성경을 보고 싶다면 『취리히해설』이 그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 성경본문의 형성 과정에 따른 해설

『취리히해설』은 성경 본문 해설에 최근의 신학 연구 결과까지 반영하여, 현대적 감각을 살려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성경의 형성 과정을 다룬 것은 지금껏 신학생과 전문가들만의 것이어서 한국 교회의 일반 독자들에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이 신학 서적을 늘 챙겨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성서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팩스로 보내 준 것이 아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을 통

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한다. 사람을 지으시고 황홀하게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본문의 형성 과정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 과정에 대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취리히성경>의 부교재인 해설 성경이 2007년에 나왔기 때문에, 2007년 이후부터 현재 2021년까지의 최근 신학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점이다.

4.3. 현대적 감각이 풍부한 해설 성경

성경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통시적)뿐만 아니라, 문학적 맥락(공시적)이 함께 어울려 읽혀야 본문의 의미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해석자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취급하면 본문의 해석이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본문의 문맥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문맥은 성경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이런 점을 『취리히해설』은 잘 반영하고 있다.

문맥은 우선적으로 본문 안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대를 반영하는 문맥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시의 컨텍스트와 오늘의 컨텍스트가 동떨어진 해석을 내린다면,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낯설기만 할 것이다. 낯설이 존재하는 해석이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취리히해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현대인들에게 감각 있는 안내서로서 자리매김한다.

4.4. 각 책별 해설

전체 해설을 통해서 각 책의 맥을 잡을 수 있다. 각 책별 해설에서 먼저 알기 쉽게 도표로 기본적인 여러 사항들을 제시한 내용이 주목된다. ‘쓴 사람’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후서와 데살로니가전서는 간단히 “바울”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살던, 교육 받은 유대인 바울로 소개한 것이 독특하다.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 선포한 점을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준다.

특히 ‘영향’ 항목도 다른 해설 성경과는 차별된다. 로마서의 경우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 나아가 20세기 변증법적 신학에 큰 영향을 줌”이라고 소개한다. 갈라디아서의 경우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여기며, “독일 ‘고백교회’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제

시한다. 또한 “종교개혁 때의 노동 윤리와 종말(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기원후 150-180년쯤 폴리캅, 유스티누스, 이레네우스가 처음 인용”한 요한1서가 주는 영향을 기록한다. 이런 영향사를 통해 성경 기록 이후에 각각의 책들이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수 있다.

4.5. 개별 단락의 신선한 해설

단락별 해설은 성경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그때그때 해결해 준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 실시간 답변을 듣는 것처럼 바로바로 뜻을 알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해매지 않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또 개별 단락의 해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이 가질 수 있는 아쉬운 점을 해소시켜 신학과 신앙의 균형감을 준다.

『취리히해설』은 에베소서 해설에서 보듯이, 공평, 평등, 변화를 추구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신선함을 안겨 준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는 말에 대해, 정말로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가? 또 정말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가?(딤후 2:15)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는가? 여기서 논할 순 없지만 당연히 바울이 이런 본문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자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늘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취리히해설』은 비교적 많은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어 현대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5. 로마서 전체 해설과 단락별 해설에 대한 평가

5.1. 로마서 전체 해석과 평가

5.1.1. 콘라트 할디만의 해석

할디만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전에 먼저 그리스에서 바울이 세운 교

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 주어야 할 일이 우선되어야 했다. 이런 상황들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로마교회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주장한다. 할디만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제시하고 더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행위’라는 핵심어만을 꼽아 짧게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할디만은 바울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문제, 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철저히 다룬다”는 것을 제시한다.

5.1.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할디만은 전체 해설에서 로마서의 주제나 신학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관해 더 많이 할애한다. 그러나 할디만의 해석은 로마서의 무게로 볼 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빈약하다. 더군다나 그가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스페인 선교 한 가지만을 제시한 것도 균형을 잃고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단지 스페인 선교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큰 범주만으로도 선교적 목적(15:18-24, 28), 복음에 대한 변증적 목적, 목회적 목적 등을 주장한다.¹⁰⁾ 기록 목적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할디만처럼 한 가지만을 제시하는 것은 편식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할디만이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행위”라는 핵심어로 제시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교회와 신학이 그간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만을 앞세워,¹¹⁾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은 간과한 채, ‘오직 믿음’에만 치중해온 점을 생각할 때,¹²⁾ 균형 있게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디만은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행위”를 핵심어로만 꼽을 뿐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해당 본문에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임스 던, 『로마서 1-8』, 김철,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3), 68-73; W. S. Campbell, “Why did Paul write Romans?”, *ET* 85 (1974), 268-269; 이한수, “로마교회의 상황과 로마서의 저술목적: 로마서 16장에 기초한 주석적 고찰”, 『신학지남』 75 (2008), 61-82.

11) 배정훈, “유대교 율법주의 연구를 통한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의 비판적 이해”, 『장신논단』 49:1 (2017), 149.

12)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홍식, “바울서신에 나타난 *ἔργα νόμου*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반제에 대한 새 관점 -갈라디아서 2: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2 (2005), 805-854; 조정철, “칭의론, 바울신학의 핵심인가? 주변요소에 불과한가? -바울신학의 핵심을 둘러싼 ‘새 관점’의 도전”, 『신학과세계』 70:3 (2011), 96-119.

바울이 로마서에서 들고 나온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의”(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는 신약에서 12번 사용된다. 그중 바울서신에서 9회가 등장하며, 한 번을 제외하고는(고후 5:21)¹³⁾ 모두 로마서에서 사용된다.¹⁴⁾ 이렇듯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임에는 분명하다. Δικαιοσύνη와 δικαίωμα 역시 바울서신 중에서도 로마서에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다.¹⁵⁾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가 크게는 주어적 소유격인지, 목적어적 소유격인지 논쟁 중이다(또한 기원적, 소유적 소유격).¹⁶⁾ 드물긴 하지만 크랜필드(C. E. B. Cranfield)는 기원의 소유격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주어진) δικαιοσύνη로 해석한다.¹⁷⁾ 견해들이 분분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것(사람)을 의롭게 하는’ 행위(주어적 소유격)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실천적 행위다. 믿음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바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안에 있다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버리고 만다(10:3).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는 복음(1:15, 16)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1:16).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1:17). 3:21-26과 관련하여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정의하는 것과도 관련된다(14:17).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칭의)을 ‘하나님께 나아가 평화를 누리는 것’(5:1)으로 이해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이 실현해야 할 실천적

13) 참조. 빌 3:9의 τὴν ἐκ θεοῦ δικαιοσύνην.

14) 롬 1:17; 3:5, 21, 22, 25, 26; 10:3 [x2]; 바울서신 외에는 마 6:33; 약 1:20; 벧후 1:1.

15) 반면 δικαιοσύνης는 신약에서 91번, 그 중 바울서신에서 57번 사용하는 가운데 로마서에서 33번이 사용된다. Δικαίω도 바울전체에서 27번 중 로마서에서 15번 사용된다. K. Kertelge, “δικαιοσύνη”, *EWNTI* (1992), 785. δικαίωμα는 바울서신에서 로마서에서만 등장한다. K. Kertelge, “δικαίωμα”, *EWNTI* (1992), 808.

16) 한천설은 애서 소유격의 네 가지 용법을 소개한다. 이 주제에 대해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천설,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개념에 대한 재조명 - 바울서신에 나타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 『신학지남』 12 (2012), 38-69.

17)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1-8*, vol. I (Edinburgh: T&T Clark, 1994), 97-98.

행위다. 믿는 자들의 믿음은 범죄에서 떠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이렇듯 바울에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고 분명 서로 일치된다.

5.2. 로마서 3:21-26 해석과 평가

5.2.1. 콘라트 할디만의 해석

할디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는 바울이 3:20까지 율법의 관점에서 진행한 반면, 21-26절부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후 하나님의 의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으로 통찰력 있게 해석한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4:1-25)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화해제물로 이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직시한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며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디만은 믿음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한다.

5.2.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복음에 나타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1:17)는 3:21-31과 관련할 때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할디만은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3:21-31과의 연관성은 간과한다. 로마서 1-3장의 구도는 교차대조법으로 형성된다(ABA).¹⁸⁾ A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ἀποκαλύπτεται*, 1:16-17). B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ἀποκαλύπτεται*, 1:18-3:20). A'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πεφανέρωται*, 3:21-31). 바울은 1:18-3:20에서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진단하면서, 3:21부터 율법과는 차별된 하나님의 의를 논한다(*νυνὶ δέ*를 통한 대조).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다르지만 율법과의 완전분리는 아니다. 그 근거를 3:21 하반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증거해 온 사실을 밝힌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¹⁹⁾

18) 최영숙,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담론 - 출애굽기 25-40장의 하나님 영광 사상을 바탕으로”, 『신약논단』 27 (2020), 169.

바울은 새롭게 시작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3:22).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²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ἀπολύτρωσις*, 참조. 8:23)을 통해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3:24). 예수 그리스도는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를 드러내기 위해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 화해제물/속죄제물)이 되셨다(3:25).²¹⁾ 던(J. D. G. Dunn)도 예수의 *ἱλαστήριον*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고 해석한다.²²⁾ 또한 초기 교회가 예수의 죽음을 희생적 죽음²³⁾으로 이해했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3에서도 증명된다. 곧 *Χριστὸς ἀπέθανεν ὑπὲρ τῶν ἁμαρτιῶν ἡμῶν*이라는 고백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한다(참조. 고전 5:7).²⁴⁾

예수의 죽음과 함께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가 드러난 하나님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롬 4장). 슈틀마허(P. Stuhlmacher)가 주장하듯이 복음에 나타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행위이자,²⁵⁾ 믿는 자들이 믿음을 드러내는 실천행위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종말론적 선’(8:28-30)을 행하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로마서 8:28의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 사역)에서 ‘선’(ἀγαθόν)은 윤리적 의미가 아닌, 구원론적 측면에서 목적을 뜻하며, 종말론적 현재

19)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3), 343. 바울은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의 균형을 말한다.

20)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그롭(Wright)과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그롭(전통적 해석)이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응봉,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16 (2009), 561-588; 최갑중,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로마서 1:16-17, 3:21-31, 4:1-25 에 나타난 ‘믿음’과 ‘의’(義)에 대한 상관성 연구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17 (2010), 357-394.

21) 3:25의 *ἱλαστήριον*이 화해를 뜻하는지, 속죄를 뜻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O. Hofius, “Sühne und Versöhnung: Zum paulinischen Verständnis des Kreuzestodes Jesu”, W. Maas, ed., *Versuche, das Leiden und Sterben Jesu zu Verstehen* (München: Schnell & Steiner, 1983), 25-46.

22) 제임스 D. G. 던, 『바울신학』,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343.

23) B. F. Meyer, “The Pre-Pauline Formula in Rom 3:25-26a”, *NTS* 29 (1983), 198-208; D. Zeller, “Sühne und Langmut: Zur Traditionsgeschichte von Röm 3:24-26”, *TP* 43 (1968), 51-75.

24) W.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Kor 15,1-16,24)*, EKK VII/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1), 32-33.

25) P. Stuhlmacher, *Gerechtigkeit Gottes bei Paulus*, FRLANT 8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80; S. K. Williams, “The ‘Righteousness of God’ in Romans”, *JBL* 99 (1980), 241-245.

이자 미래로 이해할 수 있다.²⁶⁾ 이는 로마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되듯(2:13),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실천하는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5.3. 로마서 5:12-21 해석과 평가

5.3.1. 콘라트 할디만의 해석

할디만은 로마서 5:12-21의 해석에서 “죄와 은혜”라는 두 핵심 개념으로 접근한다.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만,” 은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따라서 죄는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 은혜는 “믿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

할디만은 은혜란 죄가 불러 온 죽음을 넘어서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유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8:12-17)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5.3.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할디만은 5:12-21을 죄와 은혜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논의가 빠져있다. 이 본문은 흔히 아담기독론²⁷⁾으로 불리며, 바울이 아담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분명 있다. 아담기독론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관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죄와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는 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되기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실패한 반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다. 아담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로마서 1장 역시, 창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의 타락, 곧 죄의 근원지를 탐색한다. 1-3장까지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가득 찼고(1:18-32),²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3:23)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죄

26) 참조. P. Stuhlmacher,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124.

27) 참조. D. Zeller, *Der Brief an die Römer*, RNT (Regensburg: Pustet, 1985), 116.

28)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16), 193-194.

와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사실 바울은 죄의 궁극적인 기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죄와 죽음의 존재론적 실상이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첫 아담이 가져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생명을 가져오신 분은 오직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아담기독론의 핵심이다. 아담기독론(5장)에서²⁹⁾ 바울의 의도는 온 세상이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놓여버린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1장과 닮아있다.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5:12; 참조. 3:23)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이 생명/칭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5:1, 11, 21; 6:23; 8:1).³⁰⁾ 칭의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5:1).

5.4. 로마서 13:1-7 해석과 평가

5.4.1. 콘라트 할디만의 해석

할디만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로마 안에서 겪은 갈등의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바울이 로마서가 쓰이기 7-8년쯤 전(기원후 49년)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로마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다. 할디만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바울은, 나라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4절) 관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6절)” 평가할 뿐이다. 또한 “나라의 권력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비판, 또는 그 의미를 제한하는 말도 없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막 12:13-17)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한다.

5.4.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로마서 13:1-7은 국가 권력에 대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은 단락이다. 독자들도 바울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몹시 궁금해 하는 본문이다. 술하게 군사독재 권력의 기반을 위한 지지본문으로도

29) 참조. 고전 15:21-22, 42-58.

30) 참조. M.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1-8)*, EKK V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4), 341.

악용되어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의 올바른 해석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할디만의 해석은 난해한 본문에 대해 최소한의 해결점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어떤 학자들의 해석, 곧 바울이 “국가 그 자체나 로마제국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은³¹⁾ 설득력을 잃는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국가 자체에 관해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 또한 오스카 쿨만(O. Cullmann)이 주장하듯 위에 있는 권세 뒤에는 악한 영적 세력, 곧 ‘천사 세력들’로 보는 해석도³²⁾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13장은 ‘사랑은 선이다’라는 주제 안에 놓여 있다.³³⁾ 이 주제와 관련하여 13:1-7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이 대조된다(13:3-4).³⁴⁾ 우리는 *ἀγαθός* 용어가 이미 12장에서 자주 언급됨과 동시에 로마서에서 21번이나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 12-13장에서도 6번이나 등장하여 선과 악의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12:21)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13:8)는 진술 사이에 13:1-7 본문이 놓여있다.³⁵⁾ 12:20-21의 원수사랑 계명이 13:8의 사랑 진술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국가 권력이 원수라는 것이 아니다. 악을 행하는 국가 권력이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의 통치자들은 시민에게 선한 행위를 통해 유익을 줄 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13:4).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어구를 *ἀπὸ θεοῦ*가 아닌 *ὑπὸ θεοῦ*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보자. 전치사 *ὑπὸ* 사용을 보면, 바울은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랬더라면 기원을 뜻하는 전치사 *ἀπὸ*를 사용했을 것이다(참조. 롬 1:7; 고후 1:2; 갈 1:3; 빌 1:2). 물론 *ἀπὸ*를 사용하는 사본들이 있긴 하지만(D, F, G, 629. 945),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들은 *ὑπὸ*를 지지한다.³⁶⁾ 어떤 권위/권력도 하나님 통치 아래(*ὑπὸ θεοῦ*) 있지 않은 것

31) 케제만(E. Käsemann)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E. Käsemann, *An die Röm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78), 342.

32) O. Cullmann, *Der Staat im Neuen Testament*, 2. Aufl. (Tübingen: Mohr Siebeck, 1962), 46-49.

33)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6-11)*, EKK VI/2, 3.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30-31.

34) 선함과 악함의 개념으로 접근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D. H. Bertschmann, “The Good, the Bad and the State: Rom 13.1-7 and the Dynamics of Love”, *NTS* 60 (2014), 232-249.

35) 빌켄스(U. Wilckens)는 메르크(O. Merk)의 견해를 수용하여 롬 12-13장의 구조를, 12:1-2를 첫머리로, 13:11-14를 끝머리로 설정한다. 참조.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12-16)*, EKK VI/3, 2.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9), 74-78.

36) 이와 반대로 빌켄스는 *ἀπὸ*를 지지하여 신적 근원으로 이해한다. *Ibid.*, 33.

은 없다. 전치사 *ὑπό*를 사용한 것은 신적 기원이 아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를 ‘정하셨다’(τεταγμένοι)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특정한 목적이란 ‘선을 행하라’(τὸ ἀγαθὸν ποιεῖ, 13:3)는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는 선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13:4).

만약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가? 악행을 행하거나 악행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κρίμα*, 13:2)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문맥은 선을 행하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요청일 뿐, 악행을 범하는 통치자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권위/권력(*ἐξουσία*)은 ‘선을 행하는’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선(τὸ ἀγαθὸν)은 무엇인가? 빌켄스(U. Wilckens)는 12-13장의 문맥에서 ‘선’은 ‘사랑’(12:9, 21; 13:10)을 가리킨다고 말한다.³⁷⁾

6. 에베소서 전체 해설과 단락별 해설에 대한 평가

6.1. 에베소서 전체 해석과 평가

6.1.1. 크리스티안 슈텟틀러의 해석

슈텟틀러(Christian Stettler)는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을 꼽는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주 전체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이며 (1:21-23),”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시대에 거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강조점과 관련하여 바울은 에베소서를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책으로 본다는 것이다. 슈텟틀러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11-4)는 것을 제시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바꿔내는 삶을 살라”는 것을 촉구한다.

6.1.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슈텟틀러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것, 사랑으로 사회구

37) Ibid., 30-39.

조를 바꿔내는 삶을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신선함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텃틀러는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론이³⁸⁾ 크게 부각되어 있다. 또한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어구가 36회나 등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보다도 더욱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교회론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에베소서 신학적 구조는 우주론적이다. 예수의 지상 사역보다는 부활과 승천 이후 교회를 위한 머리로서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우주적 통치자임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란 단어도 무려 50회 정도 등장한다.

성령에 관한 언급도 짧은 서신에 비해 13회 정도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된 종말론적 선물로서 언급된다. 성령은 구원을 보증하며(1:13, 17; 3:16; 4:30), 교회를 성결하게 한다.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양육하시고 사랑하신다(엡 5:23-32). 따라서 에베소서는 기독교론,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6.2. 에베소서 2:11-22 해석과 평가

6.2.1. 크리스티안 슈텃틀러의 해석

슈텃틀러는 2:11-22에서 구약에 대한 암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유대교 문헌까지 동원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유대교 문헌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139)에서 율법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울타리와 담으로 부르르고 있는 점을 꺼내어 설명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하나’되게 하셨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킨다.

6.2.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슈텃틀러의 해석이 지닌 장점에 불구하고, 그는 2:11-22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평화’와 ‘화해’ 사상, 그리고 성전으로 ‘자라가는’ 교회에 대해서는 화두로 삼지 않는다. 2:11-22는 ‘그때’(ποτέ, 11, 13절)와 ‘지금’(νυνί, 13절)의 대조를 통해 ‘새로운 한 사람으로’(εις ένα καινόν άνθρωπον, 15절) 창조한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한다. ‘새로운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신약성서에서 이곳만큼 그리

38) F. 틸만, 『신약신학』, 우성훈, 김장복 역 (서울: CLC, 2008), 619, 623-624.

스도 중심의 평화신학과 화해신학을 펼쳐낸 곳도 없다. 그럼에도 슈텃틀러는 이에 대해 침묵한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신 주체이며,³⁹⁾ 평화가 이루어진 장소이자(“그 안에서”, 15, 16절), 도구다(“그의 육체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화해를 이루셨다(ἀποκαταλλάξῃ, 2:16). 그리스도의 화해는 새로운 상호관계변화를 말한다. 첫째, 수평적 화해로서 그리스도는 들로 갈린 원수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킨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요청한다. 둘째, 수직적 화해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두 그룹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다.⁴⁰⁾ 이렇게 서로의 적대관계는 화해를 통해 평화관계로 바뀐다.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2:11-18)에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가 어떠해야 하는지(2:19-22)로 초점이 옮겨간다. 성도들(ἄγιοι, 19절)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⁴¹⁾ 모든 믿는 자들, 곧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1:1, 15, 18; 3:8; 4:12; 5:3; 6:18).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성전이다. 옛 성전과는 다르다. 새로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2:20; 3:5). 교회는 지속적으로 자라가야(αὐξῆι, 21절) 하는 존재다. 자라간다는 것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다. “함께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계속 진행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σύν) “자라가는” 것에 중점이 있다. 더 이상 막혀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벽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자라간다.”

성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ποίημα)으로 창조된(κτισθέντες) 사람들이다(2:10).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미리 준비되었다(προητοιμάσεν). 선한 일이란 새로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1:4-5)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전은 지속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구현해 나간다.

39) P. Stuhlmacher, ““Er ist unser Friede” (Eph 2.14): zur Exegese und Bedeutung von Eph 2.14-18”, J. Gnllka, hrsg., *Neue Testament und Kirche* (Freiburg: Herder, 1974), 337-358.

40) A. Lincoln, “The Use of the OT in Ephesians”, *JSNT* 14 (1982), 25-26.

41) i)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주장, 참조. N. J. McEleney, “Conversion, Circumcision and the Law”, *NTS* 20 (1974), 338. ii)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장, 참조. O. Proksch, ἄγιος, *TDNT* I (1964), 106. iii)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주장, 참조. J. Ernst, *Die Briefe an die Philipper, and Philemon, an die Kolosser, an die Epheser* (Regensburg: Pustet, 1974), 332.

6.3. 에베소서 3:14-21 해석과 평가

6.3.1. 크리스티안 슈텃틀러의 해석

슈텃틀러는 3:14-2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깨달아야 할 것은, 비밀스런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그 사랑을 이해하려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깨달음(3:19)은 성령으로 말미암아(16상) 깊어질 수 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17상반절) 속사함을 강건하게 해 주심으로써(16하반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도(17하반절)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슈텃틀러는 여기서 지식이 우선하지 않고 사랑이 우선이라는 바울의 사상(고전 8장, 13장)을 고스란히 에베소서에서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6.3.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유승원은 그의 단행본의 제목에서 보여 주듯이 중간에 있는 3:14-21을, 순서를 바꾸어 그의 책 맨 앞으로 끌어내어 주석하고 있다. 그 이유를, 글쓴이의 기도가 “에베소의 성격과 비전을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²⁾ 어찌됐든 그만큼 이 기도문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슈텃틀러는 이 본문을 너무 가볍게 지나감으로써 중요한 사상들을 지나친다.

3:14-21은 기도문(3:14-19)과 송영(3:20-21)으로 짜여 있다. 한 단락이 한 문장으로 되어있는 기도문(3:14-19)은 독특하고 정교한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도문은 세 개의 *ἵνα*절을 통한 세 개의 기도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도(16-17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ἵνα δῶ) 기도하는데, 두 개의 부정사가 내용이 된다. 곧 첫째, 속사함이 ‘강건하게 되는 것’(κραταιωθῆναι, 16절)이며, 둘째,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는 것’(κατοικήσαι, 17절)이다. 두 번째 기도(18-19상반절)는 성도들이 능력입기(ἵνα ἐξισχύσητε)를 기도하는데, 역시 그 내용은 두 개의 부정사로 되어있다.

42) 유승원, 『크고 넓은 교회, 높고 깊은 신학』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23.

곧 첫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καταλαβέσθαι, 18절),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γνώναί, 19상반절)이다. 세 번째 기도(19하반절)는 성도들이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ἵνα πληρωθῆτε)이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두는 ‘변화’를 의미한다. 에베소서 특징은 성도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새로운 한 사람’(2:15)이며, 4장에서 말하는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따르지음 받았기 때문에(4:24),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아 새로운 행위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삶에 터를 잡는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⁴³⁾가 무엇과 관련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된다는 주장과 하나님의 지혜⁴⁴⁾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고전 1-2장),⁴⁵⁾ 그것은 하나님/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엡 2:2; 고후 5:14-15; 롬 5:8; 8:35-39). 에베소서 저자는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음으로써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요청한다. 이로써 지식보다 사랑을 행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넓고 길고 높고 깊다는 것을 선포하여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6.4. 에베소서 5:21-33 해석과 평가

6.4.1. 크리스티안 슈텝틀러의 해석

슈텝틀러는 이 본문이 아내의 복종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 널리 받아들여지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기원전 4년-기원후 65년)의

43) 우리말 성경은 19상반절이며, 그리스어 원문은 18하반절로 되어있다.

44)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구약, 외경, 위경 본문으로는 욥 11:5-9, 집회 1:3, 예녹1 93:11-14가 있다. 에베소서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의 비밀(1:9)을 말하며, 1:17-19도 지지본문이다.

45) 유승원, 『크고 넓은 교회, 높고 깊은 신학』, 35.

주장을 소개한다. ‘한쪽은 순종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슈텝틀러는 당시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을 반대하는 해석을 내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위급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하면서 그래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한다.

6.4.2.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해석 제안

에베소서 5:21-33은 그동안 인류 사회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말씀으로 적용해왔다. 슈텝틀러는 당시 이런 전통적인 입장을 반대하는 해석을 내린다. 당시 그리스-로마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던 사람들처럼, 이 본문을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지배관계를 합리화시키는 지지본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현대 여성들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했던 생각을 바꿔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슈텝틀러의 해석은 인류가 오랫동안 행해왔던 가부장적인 해석 때문에 폐해를 가져왔던 일들을 반성하게 한다.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자를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도록(5:21) 해석하여 현대 여성 독자들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공평과 평등은 일찍부터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교회가 먼저 평등과 공정 사회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슈텝틀러의 현대사회에 적합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점이 있다. 이 본문은 슈텝틀러의 주장처럼, “믿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혼인 생활에서 서로에게 가져야할 태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저자는 여기서 가정규범의 틀로 교회론을 펼쳐내고 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ἐκκλησία* 용어가 9번 사용되는데, 가정규범 본문에 집중적으로 (6번) 등장하는 것으로도 분명하다(5:23, 24, 25, 27, 29, 32).⁴⁶⁾ 쌍둥이 본문인 골로새서 3:18-4:1에 *ἐκκλησία*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런 근거를 뒷받침해준다.

5:21-33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로 해석된다. 이 유비관계를 위해 ‘...과 같이’를 뜻하는 *ὡς*(23, 24절), *οὕτως*(24, 28절), *καθὼς*(25, 29절)가 사용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σωτήρ*, 5:23)이며, 교회를 ‘사랑하셔서’(ἡγάπησεν)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παρέδωκεν, 5:25). 5:26-27에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한 사랑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26절), 둘째,

46) 그 밖에 3번의 경우는 엡 1:22; 3:10, 21에서 언급된다.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27상반절), 셋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27하반절). 에베소서 저자는 창세기 2:24를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다.⁴⁷⁾ 교회는 악한 세력과 싸우도록(6:10-20)⁴⁸⁾ 하나님에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ὁ καινός ἄνθρωπος)이다(4:24).⁴⁹⁾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와 평화(2:11-22)의 복음을 지켜내며 세워 간다.

7. 나가는 말

『취리히해설』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폭넓게 소개하며 내용에도 충실하여 큰 장점을 가진다.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나 목회자들에게도 참고할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본문 해설을 다루었다. 그래서 여러 독자층도 품을 수 있는 해설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점과 아울러 단점도 눈에 띈다. 단락별 해석을 할 때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부분과 각각의 본문들이 가지는 중요한 사상들을 놓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본문들의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난해한 본문들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해결점이라도 찾아서 독자들에게 제시해야 마땅하다. 어쩌면 독자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더 관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해설 보다는 난해본문에 더 관심을 두어 본문을 해석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취리히해설』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해설 성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7) R. Batey, “The Mia Sarx Union of Christ and the Church”, *NTS* 13 (1966/67), 280-281.

48) R. Schnackenburg,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A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91), 285; R. A. Wild, “The Warrior and the Prisoner: Some Reflections on Ephesians 6:10-20”, *CBQ* 46 (1984), 284-298.

49) H. Langenberg, *Der Epheserbrief* (Hamburg: Schriftenmission, 2004), 141-142.

<주제어>(Keywords)

해설 성경, 로마서 3:21-26, 로마서 5:12-21, 로마서 13:1-7, 에베소서 2:11-22, 에베소서 3:14-21, 에베소서 5:21-33.

Commentary Bible, Romans 3:21-26, Romans 5:12-21, Romans 13:1-7, Ephesians 2:11-22, Ephesians 3:14-21, Ephesians 5:21-33.

(투고 일자: 2021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2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 (2001), 69-82.
-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56-68.
- 던, J., 『로마서 1-8』, 김철,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3.
- 던, J. D. G., 『바울신학』,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성경원문연구』 40 (2017), 265-291.
- 배정훈, “유대교 율법주의 연구를 통한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의 비판적 이해”, 『장신논단』 49:1 (2017), 147-171.
-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5.
- 유승원, 『크고 넓은 교회, 높고 깊은 신학』,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 이용봉,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16 (2009), 561-588.
- 이한수, “로마교회의 상황과 로마서의 저술목적: 로마서 16장에 기초한 주석적 고찰”, 『신학지남』 75 (2008), 61-82.
- 조경철, “칭의론, 바울신학의 핵심인가? 주변요소에 불과한가? -바울신학의 핵심을 둘러싼 ‘새 관점’의 도전”, 『신학과세계』 70:3 (2011), 96-119.
- 최갑중,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로마서 1:16-17, 3:21-31, 4:1-25에 나타난 ‘믿음’과 ‘의’(義)에 대한 상관성 연구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17 (2010), 357-394.
- 최영숙,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담론 -출애굽기 25-40장의 하나님 영광 사상을 바탕으로”, 『신약논단』 27 (2020), 159-192.
- 최홍식, “바울서신에 나타난 ἔργα νόμου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반제에 대한 새 관점 -갈라디아서 2: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2 (2005), 805-854.
- 틸만, F., 『신약신학』, 우성훈, 김장복 역, 서울: CLC, 2008.
- 한천설,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개념에 대한 재조명 -바울서신에 나타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 『신학지남』 12 (2012), 38-69.
- Batey, R., “The Mia Sarx Union of Christ and the Church”, *NTS* 13 (1966/67), 270-281.
- Bertschmann, D. H., “The Good, the Bad and the State: Rom 13.1-7 and the Dynamics of Love”, *NTS* 60 (2014), 232-249.
- Campbell, W. S., “Why did Paul write Romans?”, *ET* 85 (1974), 264-269.

-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1-8*, vol. I, Edinburgh: T&T Clark, 1994.
- Cullmann, O., *Der Staat im Neuen Testament*, 2. Aufl., Tübingen: Mohr Siebeck, 1962.
- Ernst, J., *Die Briefe an die Philipper, an die Philemon, an die Kolosser, an die Epheser*, Regensburg: Pustet, 1974.
-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3.
- Hofius, O., “Sühne und Versöhnung: Zum paulinischen Verständnis des Kreuzestodes Jesu”, W. Maas, ed., *Versuche, das Leiden und Sterben Jesu zu Verstehen*, München: Schnell & Steiner, 1983, 25-46.
- Käsemann, E., *An die Röm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78.
- Langenberg, H., *Der Epheserbrief*, Hamburg: Schriftenmission, 2004.
- Leppin, V., “Zwingli, Ulrich (1484-1531)”, G.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vol. 3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2004, 793-809.
- Lincoln, A., “The Use of the OT in Ephesians”, *JSNT* 14 (1982), 16-57.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16.
- McEleney, N. J. “Conversion, Circumcision and the Law”, *NTS* 20 (1974), 328-333.
- Meyer, B. F., “The Pre-Pauline Formula in Rom 3:25-26a”, *NTS* 29 (1983), 198-208.
- Schnackenburg, R.,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A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91.
- Schrage, W.,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Kor 15,1-16,24)*, EKK VII/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1.
- Stuhlmacher, P.,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Stuhlmacher, P., ““Er ist unser Friede” (Eph 2.14): zur Exegese und Bedeutung von Eph 2.14-18”, J. Gnllka, hrsg., *Neue Testament und Kirche*, Freiburg: Herder, 1974, 337-358.
- Stuhlmacher, P., *Gerechtigkeit Gottes bei Paulus*, FRLANT 8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6-11)*, EKK VI/2, 3.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12-16)*, EKK VI/3, 2.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9.

Wild, R. A., “The Warrior and the Prisoner: Some Reflections on Ephesians 6:10-20”, *CBQ* 46 (1984), 284-298.

Williams, S. K., “The ‘Righteousness of God’ in Romans”, *JBL* 99 (1980), 241-290.

Wolter, M., *Der Brief an die Römer (Röm 1–8)*, EKK V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4.

Zeller, D., *Der Brief an die Römer*, RNT, Regensburg: Pustet, 1985.

Zeller, D., “Sühne und Langmut: Zur Traditionsgeschichte von Röm 3:24-26”, *TP* 43 (1968), 51-75.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e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Based on the Epistles**

Young Sook Choi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Bible Societies in various countries began to publish Bibles with notes in addition to translating and revising the Bible, from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Because the annotated Bible contains a short commentary on the text, it helps readers to understand the Bible. It is very convenient and useful because readers can understand the text in a simple way without reading commentaries or theological books. The Korean Bible Society translated what was published by the Reformed Church in Zurich, and brought a new version of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into our hands.

The Korean Bible Society always responsibly verifies works through the hands of experts, so expectations for the new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are very hig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pecial merits and usefulness of the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based on the epistles. In addition, it will be critically evaluated. First,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features of the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Then, Romans and Ephesians will be selected for interpretation and critical evaluation. Among them, I would like to select only a few texts. Namely, we will deal with the introduction on Romans and Rom 3:21-26; 5:12-21; 13:1-7. And a critical evaluation and new interpretation of Ephesians 2:11-22; 3:14-21; 5:21-33 will also be provided.